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진로인식 조사

김봉환, 한선희, 황지현, 박민지, 장영희, 박은희, 김학준*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A Research on Career Awarenes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Department of Optometry in Gyeongnam Area

Bong-Hwan Kim, Sun-Hee Han, Ji-Hyeon Hwang, Min-Ji Park, Yeong-Hee Jang,
Eun-Hee Park, Hak-Jun Kim*

Department of Optometry, Choonhea College of Health Sciences

(Received October 3, 2014 :Revised October 10, 2014 :Accepted October 17, 2014)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reer awarenes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in Gyeongnam area so that it could be used as a database to educate them on their career.

Methods. The 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Optometry in 6 universities of Gyeongnam area were surveyed through a questionnaire.

Results. Most of their motive for entering Department of Optometry was for 'finding a job(38%), while at the time of entrance, most of them (55%) thought 'optician' as their job after graduation. Now most of them are the expectant graduate and they still think 'optician' as their job(54%). The biggest reason why they think of this career was 'aptitude(34%),' and most of them wanted their first monthly wage as less than '1.5 million won (46%).' For the desired work time, most of them said 'less than 10 hours a day (73%),' and they have been figured out to want '2 days off a week and monthly paid holiday (35%).' For the questions asking any improvements that are needed for department of Optometry, they (32%) answered 'equipments that are old or in short.' For the question asking if they are willing to choose optical task even if they entered a company that is irrelevant with it, most of them (37%) said they will if the conditions work, and the other 37% said they didn't know.

Conclusions. The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and the field and their interest are required so that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Optometry would be able to work with pride as a professional to improve social welfare.

Key words: Career awareness, Career education, Department of Optometry, Employment, Optical shop

*Corresponding author : hakjunkim@ch.ac.kr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한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공은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점수에 맞추어 대학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 와서 진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¹⁾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활동의 한 방향으로서 직업 및 그를 위한 준비로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그곳을 통해 사회적 자기실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지원하는 일이다. 각자의 능력·적성·흥미·가치관·성격적 특성 등에 관한 자기 이해, 사회적·직업적 요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진로교육이 이뤄진다.

안경사를 배출하는 안경광학과는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하여 1984년 대구보건대학에 2년 과정으로 처음 개설이 되었고, 안경광학과와 개설대학은 49개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전국 안경광학과 개설학교 수는 46개로 2년제 3개, 3년제 29개, 4년제 14개이다.²⁾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은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중 안경사 국가면허 시험을 통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대략 매년 1천500 여 명에 이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며, 국민의 안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이다.³⁾ 안경사의 업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더욱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경조제 및 검안의 질적 향상 추구로 인한 업무적 부담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전문적인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본인에게 맞는 적성을 깨닫고 취업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을 통해 전공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며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희망하는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졸업예정자의 전공 선택 동기, 학교환경, 희망 진로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와 직장선택시 원하는 근무조건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춘해보건대학교(남:6, 여:15), 동원과학기술대학교(남:6, 여:12), 부산여자대학교(여:21), 부산과학기술대학교(남:28, 여:19), 가야대학교(남:20, 여:14), 김해대학교(남:15, 여:11)의 안경광학과 졸업예정자(남:75, 여:92) 총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는 진로의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시 진로와 현재 희망하는 진로로 구성하였고, 희망 이유, 희망 연봉, 희망 근무시간, 희망 근무 조건은 Excel(Microsoft 2010) 프로그램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회수 되었으나 응답 중 이 중응답이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공 선택 동기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동기는 남학생의 경우 75명 중 취업이 32%(24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지인 추천이 24%(18명)이고, 안경에 흥미가 있어서 선택을 한 학생들이 13%(10명)이었고 성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 학생들은 8%(6명)이고 기타가 23%(17명)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92명 중 취업이 43%(40명), 지인의 추천이 28%(26명), 성격 고려가 13%(12명), 안경에 흥미가 있어서가 5%(5명), 기타가 10%(9명)이었다(Table 1).

전체적으로는 응답을 한 167명의 학생들 중 취업 38%(64명), 지인 추천 26%(44명), 성격 고려 11%(18명), 안경 흥미 9%(15명), 기타 16%(26명)이었다(Table 1).

Table 1. Major choice motivation

	Male	Female	Total
Employment	24(32%)	40(43%)	64(38%)
Advise from others	18(24%)	26(28%)	44(26%)
Interest	10(13%)	5(5%)	15(9%)
Aptitude	6(8%)	12(13%)	18(11%)
others	17(23%)	9(10%)	26(16%)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취업의 용이성과 지인의 추천으로 안경광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64%)가 대다수인 반면 안경에 흥미를 느껴서 입학하는 경우(9%)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보건의 계열의 학과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이 용이(58.2%)해서 선택을 했다는 결과가 대부분이고, 다른 연구에서도 역시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 선택 동기로 취업의 용이성이 가장 높았고, 주변의 권유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님, 선배,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⁵⁾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주변의 권유로 전공 선택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이 용이하다는 반면에 안경광학과는 졸업 후 취업의 용이성이 과거보다 대학 진학자에게 덜 전달되었다거나 안경사라는 직업에 관해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⁶⁾

송⁷⁾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 선생님, 친구 등의 의견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안경광학과 전공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부모님의 의견으로 결정한 학생들은 전공 만족도가 높지만,⁶⁾ 많은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주로 지인의 추천이나 취업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경사라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 학과에 입학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고 실제 안경사는 전문 직업 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직업적 궁지, 보수 등의 요인에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³⁾

3.2. 졸업 후 희망 진로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당시 생각했던 졸업 후 희망 진로를 질문 했을 때 남학생은 안경원 65%(49명), 안경 관련 산업체 17%(13명), 관련 학과 진학 8%(6명), 안과 5%(4명), 안경 외 업체 5%(4명)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안과 41%(38명), 안경원 40%(37명), 안경 관련 산업체 12%(11명), 관련 학과 진학 5%(5명), 안경 외 타 직종 2%(2명)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ped career after graduation during admission

	Male	Female
Optical Shop	49(65%)	37(40%)
Optical instrument company	13(17%)	11(12%)
Higher Ggrade	6(8%)	5(5%)
Department of ophthalmology	4(5%)	38(41%)
Other job	4(5%)	2(2%)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남학생의 경우 안경원 64%(48명), 안경 관련 업체 13%(10명), 안과 11%(8명), 안경 외 업체 7%(5명), 관련 학과 진학 5%(4명)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안경원 41%(38명), 안과 33%(30명), 안경 관련 업체 11%(10명), 관련 학과 진학 9%(8명), 안경 외 타 직종 6%(6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ped career after graduation during graduation

	Male	Female
Optical Shop	48(64%)	38(41%)
Optical instrument company	10(13%)	10(11%)
Higher Ggrade	4(5%)	8(9%)
Department of ophthalmology	8(11%)	30(33%)
Other job	5(7%)	6(6%)

학교 입학 시 진로는 전체적으로 안경원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은 안경원을 여학생의 경우에는 안과와 안경원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경사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현재 희망 진로는 안경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입학 당시 선호도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는 안과를, 여학생의 경우는 안경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안경 외 타 직종을 선택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박 등⁸⁾의 연구에서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설문조사에서 졸업 후 희망 진로는 안경원이 57.4%(105명), 안과병원 13.7%(25명), 광학기, 콘택트렌즈 관련업체 8.2%(15명), 진학 6.0%(11명), 보건직공무원 1.6%(3명), 기타 1.6%(3명), 중복선택 10.9%(20명), 무응답 0.5%(1명)로 안경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⁹⁾은 안경광학과 3학년 재학생 조사에서 졸업 후 진로로 100명 중 66명(66%)은 안경원, 17명(17%)은 안과, 5명(3%)은 진학, 9명(9%)은 안경기기 및 제조회사, 5명(5%)은 타 직종으로 나타났다.

오¹⁰⁾는 활동 안경사의 직종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42.5%)의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활동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비의료계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는 각각 35.8%와 16.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희망을 하는 진로로 졸업 후 취업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진로 고려 원인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에게 현재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은 업무적성 30%(23명), 경제적 조건 27%(20명), 근로 조건 11%(8명), 학과의 현재 적응도 8%(6명), 기타 24%(18명)로 답을 했고 여학생은 업무 적성 36%(33명), 근로 조건 34%(31명), 경제적 조건 17%(16명), 학과의 현재 적응도 10%(9명), 기타 3%(3명)로 나왔다.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모두 업무 적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답을 했고 남학생은 경제적인 조건을, 여학생은 근로 조건을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Table 4).

Table 4. Cause of career concern

	Male	Female
Aptitude	23(30%)	33(36%)
Economic condition	20(27%)	16(17%)
Working condition	8(11%)	31(34%)
Adaptation department	6(8%)	9(10%)
others	18(24%)	3(3%)

3.4. 희망 초년 급여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취업 초년 급여에 대한 질문에서 167명 중 월 120 만 원 이하 6%(10명), 월 130 만 원 이하 17%(28명), 월 140만 원 이하 14%(23명), 월 150만 원 이하 46%(77명), 기타 17%(28명)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esired first monthly income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number(%)
less than 120	10(6%)
less than 130	28(17%)
less than 140	23(14%)
less than 150	77(46%)
others	28(17%)

안경사 종사자 수는 13,500명이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6,900명(50.7%)이다. 안경사 성비는 남자 83.6%, 여자 16.4%이며, 평균 연령은 35.1세이다.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5.6년이고 안경사의 월평균 수입은 225만원으로 보고하고 있다.¹¹⁾

같은 보건 계열 학과인 치위생과의 경우 취업초년 희망 연봉의 결과로 1500만원 미만(38.4%), 1700~1890만원(25.3%), 2000~2490만원(17.4%)순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¹²⁾

3.5. 희망 근무시간과 휴무일

경남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10시간미만 73%(122명), 10시간 23%(38명), 11시간 2%(3명), 상관없음 2%(3명)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Desired daily working hours

daily working hours	number(%)
less than 10 hours	122(73%)
10 hours	38(23%)
11 hours	3(2%)
unconcern	3(2%)

희망 휴무일은 주 1회 휴무와 월차 41%(68명), 주 2회 휴무와 월차 35%(58명), 주 2회 휴무 14%(23명), 주 1회 휴무 9%(15명), 상관없음 1%(2명)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Desired regular days off

	number(%)
once one week and monthly holiday	68(41%)
twice one week and monthly holiday	58(35%)
twice one week	23(14%)
once one week	15(9%)
unconcern	2(1%)

직업을 갖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무조건인 급여나 근무시간, 휴무에 대하여 당연한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급여와 보다 많은 휴무, 적은 근무시간을 선택하였다.

안경사의 72%가 현재 1일 11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안경사인 95%에서 희망하는 1일 근무시간은 8~10시간이고,¹³⁾ 수도권(서울, 경기), 전북 지역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 1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의 요구는 모든 직위에서 “8시간 이상 10시간미만”의 근무시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3.6. 안경광학과 개선사항

안경광학과의 개선점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자재 노후 및 부족 32%(53명), 전공과 맞지 않은 과목 20%(33명), 교수 부족 15%(25명), 과다한 입학정원 2%(3명)로 기타 31%(52명)를 제외하면 남녀 모두 실습기자재의 노후나 부족을 꼽았으며 그와 함께 전공에 맞지 않는 과목, 해당 수업에 맞는 전공교수의 부족을 꼽아 실습기자재 등이 학생의 인원이거나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3.7. 근무 조건 개선 시 진로 선택

안경관련 직업이 아닌 타 직업을 선택했을 때 원하는 근무 조건이 갖춰진 안경 관련 직업이 있다면 다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37%(62명), 한다 36%(60), 안한다 9%(15명), 무응답 18%(30명)로 다시 안경 관련

직업을 선택한다는 대답이 36%로 잘 모르겠다는 답을 포함 한 부정적인 대답 46% 보다 적었다.

안경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적합한 보수나 휴일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이 안경사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³⁾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¹⁵⁾에 의하면 안경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2009년 기준 평균 60.6시간으로 다른 보건·의료 관련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 46.8시간보다 월등히 높으며 타 직종의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¹⁶⁾에서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9.28시간으로 인해 자기개발 시간의 부족과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잦은 이직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고, 안경사의 주된 이직 이유도 근무조건 또는 근무환경, 보수, 더 많은 지식·경험을 쌓기 위해, 경영자와의 갈등 및 인간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 안경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에는 공통적으로 근무조건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³⁾

하지만 안경사는 2008년 말 전체 면허등록자는 30,886명으로 2000년의 20,220명에 비하면 약 1.5배 증가하였고, 2010년에 1,055명에서 2025년에 9,376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¹⁰⁾ 안경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안경사들의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안경사들은 안경관련업종을 포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다.¹³⁾

졸업 예정자 학생들의 희망하는 근무 조건과 안경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현실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천 여 명이 넘는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되어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드물고 일부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들도 예전에 비해 지금의 학생들은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이나 목표가 떨어진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의식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을 했을 때 기대와는 다른 직업 환경에 마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다면 적정한 기간의 직무경험은 안경사 스스로가 직무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앞으로의 발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높다면 현 안경원의 잔류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졸업 예정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올바른 진로의식을 갖도록 진로상담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안경광학과 졸업예정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안경광학과를 전공으로 선택 할 때 안경에 대한 흥미 보다는 주위의 권유와 취업의 용이성 영향이 더 커서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입학 을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안경원과 안과라는 편향된 직업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대체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있었다.

취업 후 희망하는 급여, 근무 시간과 휴무는 다른 직종보다 열악한 안경업계의 근무환경과는 상향된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차이가 취업 후 진로선택의 불만족 때문에 안경관련 업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학생들의 희망하는 진로에 따른 현장 실습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경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풍부한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안경사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References

1. Lee KH, Han JC. Study for the Validation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Scal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997;8:219-255.
2. Seo JK, Shim HS, Kim SH.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of Korean Optometrist(Optician). Korean J Vis Sci., 2014;16(3):273-291.
3. Chung SJ, Mak KC. A Survey on the Job Satisfaction of Opticians in Seoul and Gyeonggi-do. Korean J Vis Sci., 2003;5(2): 33-44.
4. Lee OJ, Park SC, Lee SW, et al. The Importance of Work Capability and the Educational Needs for Optometric Duty. J. Korean Oph. Opt. Soc., 2009;14(4):27-31.
5. Lee SJ, Lee YW, Heo R. Influencing Factors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Focused o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13;1(1): 21-21.
6. Kim SJ, Ye KH. Relation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students of Dept. of Optometry - Focusing on the ChungCheong Area. Korean J Vis Sci., 2014;16(3):249-260.
7. Song YJ.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D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4; 12-24.
8. Park HK, Lee HS, Lee YI, et al.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Ophthalmic Optics' Curriculum for Students and Industry. Korean J Vis Sci., 2013;15(4):323-332.
9. Kim HD. Survey on Notion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J. Korean Oph. Opt. Soc., 2013;15(4):13-17.
10. Oh TH.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Opticians in Korea. J. Korean Oph. Opt. Soc., 2010;15(4):S1-S7.
11. Careernet. Optician, 2010. <http://www.career.go.kr>(1 September 2014).
12. Moon HJ, Kim GH, Choi EY. A study on the employment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eniors.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11;13(4):325-328.
13. Shin HS, Kim JS, Park SH, et al. Survey on the Welfare of Optometrists in Busan. Korean J Vis Sci., 2013;15(4):361-375.
14. Lee SM. A Study of Ankyeongsa Satisfaction and Need according to Working Hours and Off-day: on the Position. Korean J Vis Sci., 2013;15(4): 377-384.
15. Park SH.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 9th analysis report.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9;303.
16. Hwang YS. A study on the manpower supply and applocation methods of the dental hygienist. J Korean Dental Association, 2002;40(11):876-886.
17. Ye KH, Kim SJ, Park JH. Study on Optician'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Korean J Vis Sci., 2012;14(4):323-330.